

아르헨티나 농업개황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세계 8위의 영토대국이다. 국토는 약 3억 8,000만 헥타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대륙부분이 약 2억 7,804만 헥타르(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국토의 약 13%가 경지면적이고 51%가 목초지이다. 비옥한 농지, 다양한 기후대(아열대, 온대, 건조, 한냉), 연중 정기적인 강우, 풍부한 태양 에너지 및 담수량 등 세계유수의 농업대국으로의 지리, 자연,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2002년 기준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1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 부가가치액은 148억 달러 수준이다. 2002년도 농업무역수지는 105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국이다. 주요 농산물인 대두유, 대두박,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박, 레몬, 꿀, 배, 옥수수, 수수 등은 세계 수출량 순위(2003년 기준)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1. 농업 구조

아르헨티나의 국토 면적은 2억 7,804만 헥타르 (2002년 기준)로 한반도의 37배, 남한의 85배에 달한다. 국토의 길이는 3,800km, 넓이는 약 1,400km에 이르고 대륙부분, 섬부분, 그리고 남극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륙부분의 경우 서쪽은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동쪽은 브라질, 우루과이와 라플라타 강의 하구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해안선이 국경을 이루고 있다.

2002년 기준 경지면적은 3,500만 헥타르로 국토면적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육지면적 대비 경지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영구초지와 미개발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목초지는 국토면적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 중 관개수리 면적은 약 5%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2002년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496억 달러이며 농업부가가치액은 148억 달러 수준이다. 농업부가가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이다.

2002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총 인구는 약 3천 8백만 명이며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10%인 367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13.4%에서 1990년 12.6%, 그리고 2002년 9.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가 인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약 9.5ha정도이고 농업부가가치액을 농업인구로 나눈 농업 종사자 1인당 소득은 4,032달러이다.

표 1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업지표

		1980	1990	2000	2001	2002
국민생산 (억달러)	GDP	2,187	1,879	2,930	2,801	2,496
	농업부가가치	97	110	150	152	148
	비중, %	4.4	5.9	5.1	5.4	5.9
인구 (천명)	총인구	28,094	32,527	37,074	37,529	37,981
	농업인구	3,769	4,096	3,755	3,713	3,671
	비중, %	13.4	12.6	10.1	9.9	9.7
국토면적 (천ha)	총면적	278,040	278,040	278,040	278,040	278,040
	목초지	143,200	142,200	142,000	142,000	142,000
	비중, %	51.5	51.1	51.1	51.1	51.1
	경지면적	30,200	30,100	34,800	35,000	35,000
	비중, %	10.9	10.8	12.5	12.6	12.6
	관개농지면적	1,560	1,560	1,561	1,561	1,561
비중, %	5.2	5.2	4.5	4.5	4.5	

주: GDP와 농업부가가치는 1995년 불변가격임.

자료: Worldbank database,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2. 농업 생산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은 대두,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기장, 귀리, 사탕수수 등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2004년 기준)은 세계 3위이다. 세계 농산물 수출량(2003년 기준)을 살펴보면, 대두유, 대두박,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박, 레몬, 꿀, 배, 농축 레몬즙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의 수출국이다. 옥수수와 수수의 수출량은 세계 2위이고, 분유와 농축 사과즙의 수출량은 세계 3위이다. 밀은 세계 5위, 쇠고기는 세계 8위, 그리고 치즈는 세계 9위, 그리고 포도주는 세계 10위의 수출량을 나타내었다.

5개년(2000~2004년) 평균 재배면적 기준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은 대두(1,137만 ha), 밀(664만 ha), 옥수수(255만 ha), 해바라기씨(229만 ha), 기장(58만 ha), 귀리(31만 ha), 사탕수수(29만 ha), 보리(29만 ha), 면화종자(26만 ha), 잡두(23만 ha), 포도(20만 ha), 땅콩(20만 ha) 등이다. 2002년 전체 경지면적에서 대두는 33%, 밀은 19%, 옥수수와 해바라기씨는 각각 73.9%와 6.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생산규모를 가진 대두의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0년에 비해 2004년 재배면적은 약 62% 증가하였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기술도입(유전자조작종자, 직파법)을 통한 농작면적증가와 생산력개선이 주 원인이다.

그 밖에 보리의 재배면적은 약 48% 증가하였고, 레몬, 오렌지, 포도의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에 각각 24%, 18%, 11% 증가하였다. 반면 해바라기씨, 기장, 옥수수, 잡두, 호밀, 땅콩 등의 재배면적은 2000년에 비해 2004년에 25% 이상 감소하였다. 대두를 제외한 곡물의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레몬, 오렌지, 포도 등의 과실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가축 사육 두수

단위: 천ha, 천두

	2000	2001	2002	2003	2004	5개년평균
대두	8,638	10,401	11,414	12,421	13,954	11,365
밀	6,476	6,888	5,830	7,000	7,000	6,639
옥수수	3,089	2,818	2,432	2,323	2,081	2,548
해바라기씨	3,477	1,820	2,015	2,324	1,822	2,292
기장	720	613	540	534	474	576
귀리	336	363	300	231	300	306
사탕수수	280	292	294	295	305	293
보리	248	271	270	284	368	288
면화종자	332	388	164	146	253	257
잡두	276	257	257	185	185	232
포도	188	202	206	209	208	202
땅콩	219	250	222	156	163	202
쌀	189	151	124	133	172	154
마테잎	155	150	152	152	152	152
감자	92	88	83	85	85	87
잎담배	60	56	66	66	66	63
호밀	87	61	57	39	58	60
오렌지	49	52	56	60	58	55
사과	46	48	50	50	40	54
차	40	39	40	40	40	47
레몬	34	30	42	42	42	40
소	12,400	11,584	11,499	12,506	12,600	12,118
닭	418	423	320	335	420	383
돼지	2,742	2,615	2,235	2,002	2,000	2,319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5개년(2000~2004년) 평균 소 사육 두수는 1,212만두로 한국의 17배에 달한다. 돼지와 닭의 사육두수는 각각 232만두, 38만두이다. 2000년에 비해 2004년에 소 사육두수는 약 2% 증가한 반면, 돼지의 사육두수는 약 27% 감소하였다.

3. 농산물 수급 현황

3.1. 곡물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인 동시에 주요 수출 농산물이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량은 2000~2002년 3개년 평균 3,531만톤, 소비량은 1,357만톤으로 곡물 자급률은 26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곡물 가운데 옥수수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전체 3개년 평균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의 각각 45%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옥수수의 자급률은 342%로 곡류 중 가장 높다.

3개년 평균 밀 자급률은 약 278%이고, 쌀의 자급률도 251%로 높다. 조와 수수의 자급률 또한 각각 174%와 122%로 높은 편이다.

곡류의 자급률이 높은 반면, 그 생산량은 3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다.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에 1,678만톤에서 2002년에는 1,500만톤으로 약 11% 감소하였다. 밀의 생산량은 2000년에 1,615만톤에서 1,230만톤으로 약 24% 감소하였고, 쌀의 생산량은 2000년에 60만톤에서 2002년에는 48만톤으로 약 21% 감소하였다.

표 3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급 현황

단위: 천톤, %

		2000	2001	2002	3개년 평균
곡류	생산량	38,450	35,637	31,830	35,306
	소비량	14,246	13,359	13,114	13,573
	자급율	270	267	243	260
옥수수	생산량	16,781	15,365	15,000	15,715
	소비량	4,900	4,401	4,474	4,592
	자급율	342	349	335	342
밀	생산량	16,147	15,428	12,300	14,625
	소비량	5,594	5,227	4,937	5,253
	자급율	289	295	249	278
수수	생산량	3,344	2,909	2,847	3,034
	소비량	2,577	2,469	2,435	2,494
	자급율	130	118	117	122
귀리	생산량	644	645	500	596
	소비량	517	569	551	546
	자급율	125	113	91	109
쌀	생산량	603	573	476	551
	소비량	185	220	254	220
	자급율	325	261	187	251
호밀	생산량	125	81	80	95
	소비량	125	81	80	96
	자급율	100	100	100	100
조	생산량	48	31	25	35
	소비량	30	13	18	20
	자급율	162	244	143	174
기타 곡물	생산량	35	32	32	33
	소비량	3	6	15	8
	자급율	1,140	557	214	419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3.2. 과일류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 과일류의 3개년(2000~2002년) 평균 생산량은 721만톤, 소

비량은 607만톤으로 자급률은 119%에 이른다.

표 4 아르헨티나의 과일류 수급현황

단위: 천톤, %

		2000	2001	2002	3개년 평균
과일류	생산량	6,689	7,889	7,058	7,212
	소비량	6,231	6,819	5,157	6,069
	자급율	107	116	137	119
포도	생산량	2,191	2,460	2,360	2,337
	소비량	2,077	2,341	2,134	2,184
	자급율	105	105	111	107
오렌지, 감귤	생산량	1,225	1,419	1,196	1,280
	소비량	1,325	1,396	992	1,238
	자급율	92	102	121	103
레몬	생산량	1,171	1,180	1,200	1,184
	소비량	897	858	402	719
	자급율	131	138	298	165
사과	생산량	833	1,429	1,000	1,087
	소비량	601	888	642	710
	자급율	139	161	156	153
자몽	생산량	218	199	170	196
	소비량	216	170	111	166
	자급율	101	117	153	118
바나나	생산량	175	175	180	177
	소비량	515	504	409	476
	자급율	34	35	44	37
파인애플	생산량	3	3	3	3
	소비량	39	35	16	30
	자급율	8	9	20	11
기타 과일	생산량	872	1,023	949	948
	소비량	561	627	450	546
	자급율	155	163	211	174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과일류 가운데 포도는 3개년 평균 생산량이 234만톤 이상으로 전체 과일 생산량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107%이다. 생산되는 포도는 포도주용이 많다.

오렌지류 가운데 오렌지의 생산량이 128만톤으로 가장 많고, 레몬 생산량은 118만톤, 자몽은 20만톤 정도이다. 오렌지류는 모두 100% 이상의 높은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레몬의 자급률은 165%로 매우 높아 세계 1위의 수출량(2003년 기준)을 달성하였다.

사과 생산량은 109만톤으로 전체 과일 생산량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자급률은 153%로 높다. 기타 과일로 분류된 배의 자급률 또한 높아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의 배 수출국이다.

반면 바나나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 생산은 미미하여 40% 미만의 자급률을 나타낸다.

아르헨티나의 과일류 중 사과, 포도, 레몬의 생산량은 연도별 등락의 폭은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0년에 비해 2002년에 각각 20%, 8%, 2%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의 자급률이 100% 이상인 공급초과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3. 채소류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의 3개년(2000~2002) 평균 채소류 자급률은 100% 수준이다. 채소류의 생산량은 306만톤이고 소비량은 305만톤이다. 2000년 이래로 그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채소류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토마토의 평균 생산량은 67만톤, 소비량은 80만톤으로 자급률은 83% 수준이다. 반면 양파는 평균 생산량은 59만톤, 소비량은 46만톤이고 자급률은 127%로 높은 수준이다.

표 5 아르헨티나의 채소류 수급현황

단위: 천톤, %

		2000	2001	2002	3개년 평균
채소류	생산량	3,081	3,000	3,092	3,058
	소비량	3,104	3,052	2,978	3,045
	자급율	99	98	104	100
토마토	생산량	693	648	668	670
	소비량	816	833	758	802
	자급율	85	78	88	83
양파	생산량	542	576	642	587
	소비량	454	443	491	463
	자급율	119	130	131	127
기타 채소	생산량	1,846	1,775	1,782	1,801
	소비량	1,834	1,776	1,728	1,779
	자급율	101	100	103	101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3.4. 축산물 수급 현황

아르헨티나에서 축산업은 곡물과 함께 중요한 농업부문이다. 특히 3년 정도 경작을 하고 휴경시 목축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곡물부문과 축산부분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대부분의 축산업은 영년생 목초지를 이용한 사육이기 때문에 사료가격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다.

아르헨티나 육류의 3개년(2000~2002) 평균 생산량은 399만톤, 소비량은 372만톤으로 자급률은 107% 수준이다. 쇠고기는 전체 육류 생산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생산량은 262만톤, 소비량은 233만톤으로 자급률은 113%이다.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 생산량과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2002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선육 보다는 가공육을 주로 수출한다. 가공육의 3개년 평균자급률은 100%이나,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7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6 아르헨티나의 축산물 수급현황

단위: 천톤, %

		2000	2001	2002	3개년 평균
육류	생산량	4,101	3,810	4,058	3,990
	소비량	3,823	3,681	3,653	3,719
	자급율	107	103	111	107
쇠고기	생산량	2,718	2,452	2,700	2,623
	소비량	2,365	2,275	2,348	2,329
	자급율	115	108	115	113
가금육	생산량	1,000	993	973	989
	소비량	1,027	999	944	990
	자급율	97	99	103	100
돼지고기	생산량	214	196	215	208
	소비량	294	270	230	265
	자급율	73	73	94	79
기타육류	생산량	169	169	170	170
	소비량	137	137	131	135
	자급율	124	123	130	126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3.5. 기타 농산물 수급 현황

그밖에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로 대두, 사탕수수, 대두박, 해바라기 씨, 대두유, 감자,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박, 치즈, 차, 잡두, 잎담배, 올리브, 꿀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3위의 생산규모를 가진 대두의 3개년(2000~2002)도 평균 생산량은 2,570만톤, 소비량은 1,980으로 129%의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대두 관련 품목인 대두유와 대두박의 평균 자급률은 각각 7372%와 4062%로 매우 높다. 이런 높은 자급률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대두유와 대두박의 세계 1위의 수출국이다(2003년 기준).

표 7 아르헨티나의 기타 농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톤, %

		2000	2001	2002	3개년 평균
대두	생산량	20,207	26,883	30,000	25,697
	소비량	17,822	19,186	22,381	19,797
	자급율	113	140	134	129
사탕수수	생산량	18,400	19,050	19,250	18,900
	소비량	18,400	19,050	19,250	18,900
	자급율	100	100	100	100
대두박	생산량	13,473	14,492	16,994	14,986
	소비량	542	367	295	402
	자급율	2,486	3,945	5,756	4,062
해바라기씨	생산량	6,070	3,179	3,700	4,316
	소비량	5,170	3,155	3,003	3,776
	자급율	117	101	123	114
대두유	생산량	3,113	3,388	3,973	3,491
	소비량	33	48	72	51
	자급율	9,574	7,050	5,492	7,372
감자	생산량	2,438	2,505	2,133	2,358
	소비량	2,355	2,393	1,985	2,244
	자급율	104	105	107	105
해바라기씨유	생산량	2,158	1,305	1,269	1,577
	소비량	344	312	395	350
	자급율	628	419	321	456
해바라기씨박	생산량	2,110	1,302	1,227	1,546
	소비량	279	301	66	215
	자급율	757	433	1,864	1,018
치즈	생산량	468	420	444	444
	소비량	451	408	419	426
	자급율	104	103	106	104
차	생산량	338	343	343	341
	소비량	249	249	247	249
	자급율	136	137	139	137
콩	생산량	297	263	278	279
	소비량	30	31	30	30
	자급율	982	860	931	924

잎담배	생산량	115	98	125	113
	소비량	57	25	44	42
	자급율	202	394	283	293
올리브	생산량	110	90	93	98
	소비량	82	59	55	65
	자급율	135	153	170	153
꿀	생산량	93	80	85	86
	소비량	5	7	5	6
	자급율	2,045	1,138	1,695	1,626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아르헨티나에서 대두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발달한데는 채유중자쇄분시설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브라질에 비해 인구수도 절대적으로 적고 돈육 및 육계산업 규모도 적어 전체 대두박 생산 중 내수용은 6% 정도인데 비해, 브라질은 생산된 대두박의 75%를 브라질내에서 소비한다.

해바라기씨유와 해바라기씨박의 평균 자급률은 각각 456%와 1018%로 높다. 또한 자급률이 높은 농산물로 꿀(1626%), 잡두(924%), 잎담배(293%), 올리브(153%), 차(137%) 등이 있다. 꿀의 3개년 평균 생산량은 9만톤, 소비량은 6천톤으로 자급률은 1626%에 이르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 1위의 꿀 수출국이다. 그 밖에 감자와 치즈의 평균 자급률은 각각 105%와 104%를 보이고 있다.

4. 농산물 무역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02년 1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283억 달러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2002년 기간에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8%에서 2002년 39%로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02년 5억 달러로 1990년에 비해

2.2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아 같은 기간 내내 농업부문 무역수지는 큰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105억 달러에 달하였다. 농산물 무역 구조를 볼 때 아르헨티나는 수출초과(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2002년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11%로 1990년의 5%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8 아르헨티나의 교역지표

단위: 억달러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총수출액	146.4	151.0	193.6	283.0	310.5	309.4	282.6
농업수출액	69.8	70.9	78.3	97.6	124.3	107.8	110.2
비중(%)	47.6	47.0	40.4	34.5	40.0	34.8	39.0
총수입액	65.5	186.1	272.9	301.2	386.6	327.4	130.6
농업수입액	2.3	9.5	12.1	13.0	16.6	13.4	5.0
비중(%)	3.5	5.1	4.4	4.3	4.3	4.1	3.8
무역수지	81.0	-35.1	-79.2	-18.2	-76.1	-18.0	151.9
농업무역수지	67.5	61.4	66.1	84.5	107.7	94.4	105.2
GDP대비 농산물교역액	5.1	3.5	3.5	4.1	4.7	4.3	11.3

주: GDP대비농산물 교역액 : (농업수출액+농업수입액)/GDP * 100

자료 :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강혜정 kang@krei.re.kr 02-3299-42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